

중기 10곳 중 9곳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올해보다 인상될 경우 대응방법에 ‘신규채용 축소’ 등 쏠아

중소기업의 76.7%는 전년 대비 현재 경영상황이 악화됐으며, 88.1%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지난 5월 6일부터 13일까지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88.1%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

80.8%는 ‘동결’, 7.3%는 ‘인하’로 응답해 최근 5년동안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2년 간 29.1% 인상으로 어려웠던 작년보다도 높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축소’(44.0%), ‘감원’(14.8%) 등으로 절반 이상(58.8%)의 기업이 고용축소를 대응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은 최근 경영악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76.7%는 전년 대비 현재 경영상황이 ‘악화’되었

다고 응답했다. 75.3%는 1분기 실적이 악화됐으며, 65.7%는 2분기도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감원이 불가피한 시기에 대해서 33.0%는 ‘6개월 이내’, 45.0%는 ‘9개월 이내’로 응답해, 현재 임금수준에서도 고용유지조차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드러났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더라도 경영·고용상황 회복에는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56.5%)을 차지했다. 이태희 중소기업협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금 중소기업은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미이너스 성장에 전망될 정도로 우리 경제와 고용수준이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노사정이 일지러 지키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모적 논쟁을 벌이기보다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하는데 합의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현재 기업들은 외부의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출혈 경영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부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그 여파가 내년도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경제 상황과 일자리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사회적기업 일자리

분야 아이디어 공모

aT, 26일까지 접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일자리 분야 아이디어 공모사업’ 참여자를 6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공모전은 aT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처음 도입했으며, 지원대상은 최소 4개팀 이상을 선발하며, 팀당 최대 1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전국의 일자리제공형, 혼합형(예비)사회적기업이며, 공모 주제는 △사회적기업 창업·스타트업 관련 일자리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고용인력 근로여건 개선·복리후생 증진 △기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다.

공모기간은 이달 1일부터 26일까지이며, 7월에 1, 2차 심사를 거쳐 17일경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신청양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aT 홈페이지(www.aat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T 이병호 사장은 “이번 공모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다시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기업과 동반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고창부안축협, 고창한우

판매행사 성료

고창부안축협(조합장 김사중)은 롯데아울렛 광주수원점 ‘우수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전북지역 대표로 고창한우 판매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한 전국의 6차산업 우수 3개 지자체가 연계하여 열린 생산자 직거래 장터이다.

최근 실시된 행사는 지역별(3대) 우수생산지(10대) 직거래를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와 고품질의 상품을 제공하는 차별점을 가졌다.

한편, 고창부안축협은 현재 자사 경제사업장(고창군 흥덕면 신덕리)에 고창군과 함께 43억원을 들여 ‘TMF 사료 가공시설’을 신축하고 있다.

이 시설은 한우번식 및 비육에 필요로 하는 영양 요구량에 맞게 조사료와 농후사료 등 여러 종류의 사료를 가공하는 시설로 원료 저장 및 사일로, 투입시설, 미생물 배양시설, 고형 발효기 등이 설치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촌진흥청-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영농 정착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식

- 일시: 2020. 6. 1(월) 13:30 - 장소: 농촌진흥청 제2회의실

농촌진흥청은 남북하나재단과 북한이탈주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일 농촌진흥청 본청에서 체결했다.

북한이탈주민 영농 정착 지원 협력

농진청, 남북하나재단과 협약 체결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정인성)과 북한이탈주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일 농촌진흥청 본청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귀농 희망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자립에 대한 중요성을 두 기관이 인지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과 농업기술지원 및 영농 정착 성공사례를 확산해 북한이탈주민 영농인의 농촌 유입에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농진청은 영농 취·창업 상담 및 농업·농촌 이해 제고 활동을 펼치고, 영농현장 애로 농업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농촌유입 확대를 위해 영농 희망자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자력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015년부터 통

일부 영농지원자금 수혜 농가를 대상으로 총 22회 영농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영농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남북하나재단과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 전문성과 남북하나재단의 영농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귀농시에는 농촌 인구 유입의 긍정적 요소로 작용해 고령화된 농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NH농협손보, 벼 재해보험 대상 28일까지 판매

NH농협손해보험 전북지역총국(총국장 강희상)은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오는 6월26일까지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전을 도모하는게 목적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만들어진 정책보험인만큼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여기에 지자체에서 추가로 30~45%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농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시군에 따라 5~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인상, 농업용 시설 작물 등 67개 품목도 재배시기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와 지역농축협 매칭사업으로 벼 보험료 5%를 더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가입이 조기 소진될 수 있다.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09년 도입된 정책보험인 벼 보험은 태풍, 우박, 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병해충특약 가입 시에는 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향후 병해충의 발생원인, 방제가능성 등을 고려해 병해충 보상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벼 경작불능보장(피해를 65% 이상) 보장기준이 수확개시 시점에서 출수가 전으로 변경되어 경작불능보상금을 받으려면 출수가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피해를 입은 벼는 산지폐기에 유통하지 않도록 의무화했다.

태풍, 폭염 등이 연이어 발생한 작년에는 벼 농가 피해가 극심했으며, 전북 내에서도 1만6,035농가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455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경영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강희상 총국장은 “올해 봄에도 이상저온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앞으로는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농가 자부담을 최소화하고 농협 매칭사업으로 추가 지원하는 만큼 재해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농가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오픈뱅킹 전용 패키지 상품 판매

전북은행, ‘JB Smart-App 예금·적금’

예금 최고 연 1.65% · 적금은 2.75%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오픈뱅킹 전용 패키지 상품인 JB Smart-App 예금·적금을 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JB Smart-App 예금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는 만기 1년 정기예금으로 예금금리는 기본금리 연 0.95%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1.65%까지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최고 연 0.7%로 마케팅 동시 연 0.1%, 오픈뱅킹서비스 출금이체를 통한 예금 신규시 연 0.30%, 오픈뱅킹 추천번호 우대금리 최고 연 0.3%(1인당 연 0.10%, 최대 3인)를 제공한다.

오픈뱅킹 추천번호 우대금리는 예금 신규시마다 제공하는 추천번호를 지인이 신규시 입력하면 추천번호 제공계좌와 입력계좌에 각각 연 0.1%를 제공한다.

JB Smart-App 적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는 만기 1년 자유적금으로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예금금리는 기본금리 연 0.95%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2.75%까지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최고 연 1.80%로 마케팅 동시 연 0.1%, 오픈뱅킹서비스 출금이체를 통한 적금 신규시 연 0.50%,



전북은행 입출금통장에서 6회 이상 자동이체시 연 0.30%, 오픈뱅킹 추천번호 우대금리 최고 연 0.90%(1인당, 연 0.30%, 최대 3인)를 제공한다.

은행 관계자는 “많은 고객들에게 전북은행 오픈뱅킹서비스의 편리함을 경험하고, 높은 우대금리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오픈뱅킹 전용 상품을 출시했으며, 오픈뱅킹서비스 등용, 전용 상품 가입 고객 등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이 상품은 전북은행 스마트뱅킹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상품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jbbank.co.kr) 또는 고객센터(1588-447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병원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AI 도입

정형외과 윤선중 교수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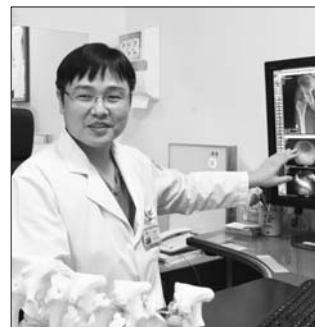
정확도 · 시간단축 기여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에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1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정형외과 윤선중 교수팀(사진)이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적용, AI가 가장 적합한 인공관절 종류와 크기를 판단하는데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해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도록 구현하고 있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은 파괴된 고관절의 일부를 인공물로 대체해 고관절의 운동기능을 보존하고 통증을 감소시키며 일상적인 활동을 가능케 하는 치료방법이다.

무혈성 괴사, 고관절염, 고관절의 이형성증, 골절, 선천성 고관절 탈구, 외상, 감염, 특발적 원인에 의해 고관절 통증이 발생하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내



원하기 위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을 통해 기존의 데이터로부터 학습된 결과를 이용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했다.

AI는 딥러닝을 통해 학습된 데이터로 최적의 관절 종류, 크기 및 위치를 제시해주며 수술 중에 사용되는 실시간 방사선 투시 영상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고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큰 장점이 있다.

윤선중 교수는 “고관절 인공치환술의 경우 환자분들의 골반골과 대퇴골 고관절의 모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한 인공관절 제품 및 크기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며 AI로 최적의 인공관절을 선택할 수 있어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고 수술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합병증을 줄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호국보훈의 달 맞아 호국원 참배

농협은행 전북본부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1일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국립립실호국원을 찾아 묘역 참배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전북영업본부와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단장 박병철), 농협 입실군 지부(지부장 이희운)가 함께 실시한 이날 봉사활동에는 25여명의 임직원이 헌탑 참배 후 비석 닦기, 태극기 꽂기,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며 묘역 관리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이날은

2020년 신규직원 최종 합격자 10명 이 첫 사회공헌활동으로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자리에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전북본부는 봉사활동과 함께 현충일을 맞아 호국원을 찾는 추모객들을 위한 생수 2,000여개를 전달했다. 장기요 본부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숭고한 위훈을 가슴에 새기고 지역사회와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